

“경제자유구역·동서고속鐵 서둘러라”

한·러 정상 APEC서 가스관·철도 협력 합의

한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가스관사업, 철도, 연해주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 따라, 국가 차원의 동해안권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환동해권에 투자가 더 급증할 전망이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관(PNG)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남·북·러를 연결하는 노선과 함께 중국을 경유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한·러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 경유를 분명히 합의 따라 종착지 삼척 유치는 더욱 유력해졌다. 최문순 지사와 러시아 연해주 미클루세프스키 주지사는 지난 6월 연해주에서 러시아 PNG 삼척 연결과 철도, 북극항로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PNG에 대한 도와와 협력은 연해주 정부가 러시아 중앙정부와 교감하는 내용이다.

삼척(제4LNG 생산·저장기지)

이 종착지가 되면 서해안보다 과이프라인 길이가 100km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척에서 수도권까지의 가스 운송은 현재 건설 중인 가스배관망을 활용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PNG의 북한 통과를 한반도 종단철도(동해선철도) 등 물류망 확충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NG 종착지 삼척 유력 중·러 투자 급증 전망 국가 차원 투자 확대 요구

발전연구원 김진기 부연구위원은 “파이프라인을 위한 도로 건설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남북을 잇는 철도 건설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5~6년 전부터 극동지역 개발에 20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러시아 중앙정부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환동해권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3,000억 원을 투자해, 국경지역의 하산역과 북한의 두만강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개통시키기도 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남한을 잇는 철도망을 통해, 한국과 경제 협력을 늘리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동해선 철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 안에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동서고속화철도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면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연해주는 물론 중국 동북3성, 유럽시장을 겨냥한 경제거점으로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철규 도 경제진흥국장은 “러시아 가스관과 철도의 동해안 연결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 등의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社 說

‘남~북~러 가스관’ 강원도의 미래 비전이다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를 잇는 천연가스 연결 추진을 주목하게 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스관사업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북한을 경유하는 남·북·러 간 가스관이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종착지(터미널)로는 삼척이 유력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신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호기를 맞는다.

강원도는 수년 전부터 남·북·러 가스관 연결에 공을 들여왔다.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일본 돗토리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성장회의에서 이 의제를 거론했다. 5월에는 ‘가스관, 동해안 연결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연해주 정부에 전달했으며 6월에는 양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내용의 협의를 교환하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2~3년 전부터 환동해권 출구 전략으로 동북아의 가스관 연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미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가스관 1차 라인을 개통했다.

러시아는 세계 제일의 천연가스 매장 국가다. 전에는 서시베리아의 우랄연방관구에 위치한 튜멘유전에서 생산했으나 최근에는 동부시베리아에서의 생산이 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도 이웃의 ‘에너지 대국’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가스관 연결은 한·러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우리나라 동해안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보 리스크 해결이라는 과제가 대두되지만 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하면 남북 협력에도 기여하게 된다.

연해주는 천연가스 이외에 산림자원, 지하자원, 농업자원, 어족자원이 풍부한 자원의 보고다. 가스관 구축과 더불어 각 분야에 걸쳐 연해주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철도 연결도 성과를 내야 한다.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에 연결하면 동해안에서 출발한 열차가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달릴 수 있다. 열차로 화물수송이 가능해지고 항공여행도 육로 관광으로 전환된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바란다. 강원도의 미래 비전과 직결된 일이다.

남~북~러 가스관·철도 한·러 정상 “긴밀히 협력”

이 대통령-푸틴 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남한-북한-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 러시아 대통령으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은 남북문제 해결이 러시아 극동 개발과 한-러 양국 간 경제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남-북-러 가스관과 철도, 송전관 사업 등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긴요하다”며 “북한이 어느 시점에 가면 결심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한반도 안정에 러시아도 매우 관심이 크며 한국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과 철도, 송전관 등 3각 협력

러시아 천연가스관 및 건설 예정 파이프라인



에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인적교류와 양국 진출 기업·과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양국 간 합의한 사증면제협정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만간 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과학기술, 우주·방산, 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 양국 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명태를 비롯한 수산물 쿼터 확대와 수산 분야 투자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수산물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김창우기자 cwookim@

지역 경제인 한마당 축제 열린다

13일 정선 하이원서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강원경제인상 시상·경영 노하우 특강 등 풍성

지역 경제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이 13일부터 이틀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다. 각계 명사들이 전하는 경영 노하우와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400여명의 참가자가 몰리는 등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행사 첫날인 13일 오후3시30분에는 ‘2012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의 하

이라이트인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총상금 1억1,000만원이 걸려 있는 강원경제인상에는 올해 40여개 중소기업이 공모했으며 심사위원단은 11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상금 규모가 국내 최대인데다 수상에 성공하면 강원 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경쟁 역시 그 어느 해

보다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부터는 정재훈(산업경제실장) 지식경제부 차관보와 양준혁 JH스포테인먼트 대표의 특강이 이어진다.

정 실장은 ‘글로벌 시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영마인드와 노하우를 전한다.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 야구 해설위원, 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양 대표는 자신의 경험담과 철학을 바탕으로 ‘고난이 성공을

만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강 후에는 지역 경제인들의 모여 화합을 다지는 환영리셉션 자리가 마련된다.

14일에는 김상표 도 경제부지사의 조찬강연과 강원경제인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된다.

강원일보사와 하이원리조트는 도내 중소기업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다. 원선영기자 haru@

3대 현안+5대 과제 이슈화 필요

■도 공약 무엇을 담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도 미래 5년'을 담보하기 위해 도 관련 현안의 대선공약과 관철 등을 이끌어내는 도와 도 정치권, 지역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도의 특수 환경과 연계된 국가적 의제를 이번 대선 정국에서 이슈화 시켜 도의 최대 이익을 담보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여기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를 설치 등 3대 숙원현안의 대선 전 해결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지원사격을 이끌어 내야하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경선 후보들은 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종 공약을 제시,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일부는 도가 중앙정부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현안을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으로 재원조달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담겨있지 않아 자칫 '강원도 대선용 공약(空約)'으로

동계올림픽·한반도 평화 국가 의제 연계 도·정치권 협력 후보 공약 채택 유도해야

끝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단골 공약으로 등장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최근 24년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말로만 공약으로 머물렀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가진 실천의지가 급선무다.

여야 대선 후보와 경선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춘천~속초 철도,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의 숙원현안과 금강산 관광재개, 제2,제3의 개성공단 조성, 남북경제연합을 통한 환동해권 경제시대 개막 등의 도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이들이 밝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강원도 경제활성화 등의 총체적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춘천~속초 고속철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 도내 숙원현안 해결을 통한 각종 산업 및 물류 거점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들은 도 숙원현안 해결과 관련,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구체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도는 5대 대선 공약 과제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대륙선진기지 구축 △지역공동체 복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국가지원 △강원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 등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도 관련 주요 공약이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공식 채택돼 도의 발전이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지은

CEO의 북마크

김대호 (주)대건 대표

'행복한 눈어읽기' (양병무)

사업을 시작한 뒤 눈어를 접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로 시작하는 이 장중한 20편의 글은 사실 일반인들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우연한 기회에 만난 '행복한 눈어읽기(양병무, 21세기북스, 2009)'는 그래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눈어는 흔히 유교사상의 정수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 그런 딱딱함은 찾아



이 책 본문 중 '기속 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을 소개한 것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쉽게 말

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이 한 줄의 의미는 상명하복의

“내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말라”

볼 수 없다. 대신 자기수양을 통해 인격을 연마하고 스스로 강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혜의 공급처이며, 리더십의 보고라고 이야기한다.

본문은 이 눈어 속에서 현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생처세를 이끌어냈다. 눈어의 핵심 주제를 모아 평생학습, 직업정신, 리더십, 인간관계, 삶의 원칙 등 5개 주제로 정리했다.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기쁨, 몰입의 즐거움, 자신을 이기는 습관, 섬김리더십, 후계자 양성, 성공한 사람의 성품, 인생 발전 6단계, 삶의 자세 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규격화된 조직문화, 대화의 단절에 따른 소통 부재와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에 일정한 화두를 던져 주는 느낌을 받았다.

요즘 건설분야를 포함해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좀 더 긍정적인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듯 눈어읽기의 새로움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춘천 ▲춘천고, 한국외국어대 ▲(주)대건 대표 ▲춘천상공회의소 일 반의원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운영위원